



산사로 가는 길

내가 어려서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의 일로 생각된다. 어머니를 따라 시골에서 포북포북 산언덕을 넘어 계곡을 따라 어느 나무 우거진 산속에 부처님 계신 곳을 찾아가던 일이 생각난다.

그 산 밑 뚝배기는 전등이 없으니 산사에도 물론 전등이란 것은 생각도 못할 때다. 아침 일찍 집을 떠나 이슬을 헤치면서 그 곳에 도착하곤 했다. 나는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불(호룡불)말에 어른들이 응성거리며 무엇인지 바쁘다. 독경소리 또한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의 그 산사는 지금은 뜰도 넓어지고 전등도 들어오고 전화까지 있는 것을 몇년전에 가보았다. 어려서는 전국에 절이 몇군데 없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 지금은 도처에 사찰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곳저곳 많이도 다녔다. 그

**신선같은 기분에 한 없이 즐거워**

산중의 신선한 공기와 그때의 기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으며, 산사의 뜰에서 이것저것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고 어른들과 스님을 따라 몇번인지 수없이 부처님께 예배한 생각은 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기원하였는지 전혀 기억을 할 수는 없다. 어머니를 필경 우리 아들 잘 보살펴 달라고 기원했었을 것이다. 불공이 끝나고 공양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 음식의 맛은 무엇이랴 표현할 수 없다. 아마도 그때의 나의 마음과 나의 생활은 신선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다. 포식하고 나서 나는 어느 귀퉁이에서 한숨 쉰 자고난 모양이 떠오른다. 희미한 등

렇게 다녀도 절로 가는 길은 어려서와 같이 언제나 즐겁기 한이 없다. 유년의 기억이 가득한 월정사 입구표시관을 뒤로 보내며 오리(五里)속을 달리고 있다. 이곳도 몇년전의 모습과 좀 달라졌다.

산천은 변함이 없었는 것 같은데 길은 바쁘게 사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확 뚫렸다. 어려서 처음 가본 그 산사에 비하면 몇백배 더 큰 절이며, 버스를 타고 가지만 내 마음은 어딘지 신선들이 사는 곳을 찾아가는 것 같다.

전영화 <불교미술협회 회장>

**믿음으로 찾은 행복 ③**

**주부신행담**

"엄마! 엄마는 불교공부한다면 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이 유익한거야"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을 무렵 느닷없이 11살 난 아들녀석이 소리쳤다. 나도 모르게 "네가 뭐 안다고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어 끼어들길" 하고 꾸짖으면서도 내심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아들녀석이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남편도 계면직은듯 고개를 돌리고는 묵묵히 시선을 TV에 고정시켰다.

"어려서부터 불교를 접하게 해주자"고 남편과 합의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는 스스로 불교속에 찾아들었다. 그런 아이를 보며 너무 조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결코 실지는 않았다. 불법을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것은 아이에게 커다란 행복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공부방이 따로 없는 아이에겐 밤상자리가 곧 화실이 되곤 했다.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선, 수습개, 수백개의 선을 흔들림없이 표현해야 하는 완성을 위한 연습은 절에서 지켜 보기에 측은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가 그 어려운 과정을 답습하는데 실증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아이의 요구를 응석으로만 여겼을 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다가, 무심코 불화를 배워 보겠느냐는 내 반문에 꽤히 응낙했던 아이였다.

일주일에 한두번 선생님에게 가서 불화(佛畵)를 배우기 시작했을때만 해도 그다지 오래 가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아이는 결코 풀러나지 않았다.

"어떻게 11살짜리가 저토록 불교와 끈끈한 정을 맺을 수 있을까? 이것도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인연의 은혜란 말인가?" 아이는 이미 우리 부부에게 있어 스승이나 닮은 것이 없었다. 함부로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샅된 마음

을 먹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어린 아이가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피를 한없이 내려 주기 위해 우리 곁에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아이의 불성(佛性)으로 인해 여러가지 화제가 오가던 어느날 나는 남편에게 이렇게 제의했다. "우리도 어렵지만 이만큼 사는 것도 다 부처님 원력 덕분이니 우리도 부처님 뜻에 따라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 어떨까요?" 이 말

을 들은 남편은 오래전부터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생활에 쫓겨 말조차 못하겠다며 환한 표정으로 흔쾌히 내 제의를 받아들였다.

세검정에 자리를 잡고부터 그런대로 가계를 키우기 시작한 우리는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만도 20여명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를 넓혀왔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었다. 세상은 눈물나는 일도 기쁜 일도 많다지만 여기는 때때로 이 두가지가 나란히 공존하는 단절된 세상이었다.

처음 포천의 고아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지는 말을 들은 미용실 식구들은 내심 내키지 않는 눈치였다. 그도 그럴것이 황금같은 휴일을 하루 온종일 다른 사람을 위해 할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용실 식구중에는 부처님을 믿는 식구도, 믿지 않는 식구도 있었으므로 종교적으로 유대감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끈질기게 설득하고 마침내 미용실 식구들은 어느덧 아이들과 정이들어 돌아올 때에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이들과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되었다. 부처님을 믿지 않던 식구들도 차츰 불법을 따르며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런 우리모두는 이미 부처님 앞에서 자랑스런 불제자가 되어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몸을 실은 차가 서서히 움직일 때면 아이들은 차를 따라 뛰어 눈물을 흘리곤 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 차문을 열고 뛰어오는 아이를 안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부처님이 기쁜 아이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소서! 이화지 (서울 종로구 홍지동)

**"어렵지만 이만큼 사는것도 다 부처님 덕분이니 불우한 이웃을 도우면 어떨까요?"**



아침 7시, 전남의 피곤했던 몸을 일으켜 세우기도 이른 시간이지만 우리 세 식구와 미용실 식구 모두는 차에 몸을 싣고 포천에 있는 한 고아원으로 달려갔다. 밤새도록 준비한 김밥,과자 등 먹을것과 새벽에 남대문시장에 가서 사온 옷과 장난감 병정들도 동행했다.

한달에 한번씩 만나는 아이들이지만 이들에겐 한달중 이 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예쁘게 깎아 주기도 하고 잠시지만 엄마와 아빠 누나와 형이 되어 점심을 같이 먹고, 게임도 하며 세상사를 모조리 잊으리만큼 마구 뛰고 윙글

때, 구경거리나 가무를 보러갈때, 도박할 때만 그대의 친구이다.

The friends who should be reckoned as good-hearted are four. The helper, the friend who is constant in happiness and adversity, the friend of good counsel, the sympathetic friend.

네가지 이유에서 부랑하는 친구를 가장한 적으로 생각된다. 그는 그대가 술마시러 가거나 때 아닌 시간에 환락장이 드나들

는 네종류이다. 도움을 주는이, 즐거울 때나 괴상 할 때나 한결 같은 이, 좋은 충고를 해주는 친

**영어로 배우는 경전**

**선생경 ⑧**

구. 인정있는 친구.

The friend who is a helper is to be reckoned as good-hearted

on four grounds. He protects you when you are taken unawares. He protects your property when you are not there to protect it. He is a refuge to you when you are afraid. When you have tasks to perform he provides twice as much help as you may need.

도움을 주는 친구는 네가지 이유에서 마음씨좋다고 생각된다.

그는 그대가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 그대를 보호한다. 그는 그대가 없을 때 그대의 재산을 보호한다. 그는 그대가 두려움을 느낄때 그대에게 피난처가 된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는 그대가 필요한 두배로 도움을 준다.

\*adversity: 역경, 곤난  
\*take someone unawares: 남의 허를 찌른다.  
<박미영기자>

**따뜻함이 있는 곳, 우드텍이 있는 곳**

온돌 전용 나무 마루재 우드·텍

**새로운 마루 생활이**

**마루난방에 적격입니다**

휘어짐, 뒤뜸 등 기존 목재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한 온돌전용 나무 마루재입니다.

**내구성이 강합니다**

강화 아포크 처리에 의해 어떠한 마루난방의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JAS(일본 공업규격)보다 약 2배의 내마모성을 가진 사이렉스처리 목재 특유의 아름다움이 언제나 유지됩니다.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재와 목재의 접합부분을 전용접착제로 견고하게 접착하는 네다레스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 · 온돌방까지 원하는 곳 어디나 ...

**시작됩니다**

**주요 시공실적**

- 현대건설 평창동 VILLA
- 한라건설 시그마 주상복합
- 나산건설 보래매 주상복합
- 나산건설 서촌 주상복합
- 동부건설 우면동 VILLA
- 신동아건설 암사동 VILLA
- 현대건설 춘천봉의 VILLA
- 에칭 DEPT(점포용)
- 롯데 DEPT(점포용)

**W@DTEC**

**ESU 興生産業株式會社**

우드텍사업부: 강남구 도곡 2동 454-56 (도곡전시장) 동화B/D내 전화: 579-2793-4  
본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23-5 (덕영빌딩) 전화: 572-0662 / FAX: 575-9728

주요업종: 산업용품 · 종합 무역 · 식음기계 ENG · 건설자재  
레저산업(동서울 스포츠 센터)

**서울 대리점** 구산 코퍼레이션 (02)515-9653-4  
코인상사 (02)564-3171

**경기 대리점** 이강산업 (0341)987-9151-9  
비닉스 (0342)701-8055  
진흥주택 (0331)282-7528  
웅진산업 (032)549-2218-9

**대구 대리점** 동방상사 (053)766-9991

**광주 대리점** 규림상사 (062)676-2758

**대전 대리점** 경동 보일러 (042)932-3680